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제 1독서 : 장세 14, 18-20  
제 2독서 : 1고린 11, 23-26  
복 음 : 루가 9, 11b-17

# 숨 정 이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십시오.”  
(1고린 11, 26a)

## 강론

###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

한병헌 신부 / 여산 천주교회

지금으로부터 약 천 년 전에 교황님이 살던 이탈리아 땅에 기사도 정신이 투철한 한 젊은 성주가 있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살아 생전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공을 세울 수 있을까? 하고 항상 골똥히 생각하곤 했다. 그러던중 어느 날 그에게 한 가지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에 사용한 금잔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그가 성문을 막 나서려 할 때에 문동병에 걸린 거지 하나를 만난다. 이 거지는 성주를 만나자 그 발 아래 엎드려 “한푼만 도와 주세요”하고 말한다. 성주는 대뜸 거지에게 “재수 없다. 이놈아, 어서 길을 비켜라”하고 큰소리친다.

이때부터 수년 동안 성주는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땅 구석구석을 뒤지고 심지어 에집트 땅과 사막을 모두 뒤졌으나 헛수고였다. 그는 지칠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떠나던 때와는 달리 낡고 낡은 옷에 지팡이를 짚고 초라해져대로 초라해진 모습이였다. 그런데 성주가 성문에 막 다다랐을 때였다. 그가 금잔을 찾기 위해 떠날 때 만났던 그 문동병 거지가 또 그 앞에 나타났다. 그 문동병 거지는 이전과 같이 성주를 만나자마자 “한푼만 도와 주세요”하고 애원한다.

성주의 마음은 그 동안 술하게 겪은 고생으로 그 오만하던 거드름은 없어졌다. 성주는 가지고 있던 마른 빵 절반을 딱 잘라서 그 거지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허리에 차고 있던 쪽박을 들고 웅달쌈으로 가서 물 한 바가지를 떠 왔다. 성주는 그 거지에게 물을 건네주면서 “당신을 돕는 것이 변변치 못해 미안하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오”하고 말했다. 그때 갑자기 문동병자였던 그 거지가 예수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께서는 그 성주에게 “두려워 말고 들어라. 금잔을 찾으려고 아무리 헤매어도 쓸데없는 것이다. 샘물을 길어 온 그 보잘 것 없는 쪽박이 바로 내 거룩한 잔, 내 성배다. 네가 오늘 떼어 준 빵(바로 그 사랑)이 내 살이며 네가 떠다 준 물(그 마음)이 바로 내 피다”하고 말씀하신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매번 받아 모시는 성체 안에서 진정으로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까.

## 소리

### 이래도 되는가

8년 전 6월, 이 땅에는 이른바 민주 항쟁이라 불리는 시민혁명이 있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6.29선언이라 이름 붙은 군사 정권의 항복 선언을 받아 낸 것이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젊은이들과 민주 시민들이 온갖 고초와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이때 이들은 명동 성당 등을 의지 삼아 그 명맥을 이어왔고 끝내는 열매를 거두었다.

정치적으로 암울했던 시절,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를 말하는 교회의 윤리적인 판단과 노력에 큰 기대를 걸고 따르기도 했다. 그리고 억눌리고 짓밟힌 자들이 마음놓고 숨쉴 수 있는 공간 명동 성당을 자연스레 성역(聖域)이라고 불려왔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산 역사이다.

그런데 지금 그 명동 성당이 소위 문민정부의 공권력에 짓밟혀 치욕적인 몸살을 앓고 있다. 사태의 발단이 된 한국통신 노동조합 문제에 대해 조계사와 명동 성당은 이를 대화로 풀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결실의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국 불교의 상징 조계사와 한국 천주교의 상징인 명동 성당을 끝내 힘으로 밀어붙이고 만 것이다. 군사 독재 정권만도 못하게,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며 책임을 묻는 것이다.

명동 성당을 서을 명동에 있는 성당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 명동 성당은 한국 천주교회의 상징이고 우리 모두의 본당이다. 아니 온 국민의 쉼터이다. 우리 모두 이 정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 ☒

### 숨정이 산책



## 한국전쟁과 순교자들

박대길(벨라도)

한국 천주교회는 ‘순교자의 역사’라고도 한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한국 천주교회가 순교자들의 피와 땀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이다. 박해시대 우리의 신앙선조들은 신앙을 고백하고 박해자의 칼날에 영광스러운 순교의 월계관을 받았다. 이 일은 불과 200여 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불과 45여 년 전 이 땅에서는 다른 형태의 순교가 있었다. 바로 한국전쟁의 순교자들이다. 현대 우리는 잊고 산다. 순교자는 박해시대의 순교자들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고, 설사 한국전쟁 때 순교한 분들이 있다 해도 그분들은 순교자가 아니라 그저 역사의 비극 속에서 죽음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1961년 전주교구는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교우들을 조사한 바 있는데, 그 수가 남원 2, 부안 4, 상관 7, 수류 14, 신태인 22, 장수 1, 정읍 16, 진안 4명 등 70명에 이른다. 희생자 중 많은 교우들이 학살당하기 전 수차에 걸쳐 배교를 강요당했지만 끝까지 신앙을 고집하였다.

어느 가정에서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함께 총살을 당하였다. 1950년 10월 2일 순창군 쌍치면 학선리 자택에서 있었던 일이다.

「조옥금(趙玉金·안나·33세)는 미사에 쓰는 제의를 머리에 씌우고 시아버지 윤병기(尹炳基·바로로·77세)는 제의를 입혀서 본가(本家) 뜰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천당 가냐?”고 하니, 그들은 “그렇다”고 기꺼이 대답해 총살당하고 말았다.

죽기 전에 “기다려라. 할 말이 있다”고 하여 기도한 후 손을 마주 잡고 “예수 마리아”를 여러번 부르며 쓰러졌다. 두 분은 평소 열심한 신자이며 제의는 공시용품이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우리 민족은 ‘갈등’과 ‘분단’, 그리고 ‘전쟁’과 ‘증오’에 가득 찬 세월을 지내왔다. 특히 ‘한국전쟁’은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대고 민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 교회 역시 이 역사의 비극에서 예외일 수



없었고 수많은 신앙인이 희생되었다. 그것은 이 민족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경험한 남과 북의 형제들은 서로를 형제가 아닌 원수로 여기게 되었다.

분단 50년의 세월은 ‘통일염원 5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간직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이 많은 세월 동안 남과 북의 형제들은 용서와 화해와 일치를 위한 노력보다는 분노와 증오에 가득 찬 시선을 주고 받았다. 신앙인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전쟁 때 겪은 참상과 희생 때문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공산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고,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나 신앙인의 본분은 무엇인가. 용서와 화해와 일치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아닌가. 신앙을 고수하고 그 신앙 때문에 희생당한 희생자들과 순교자들은 박해자를 원망하거나 증오하거나 원수로 여기고 있으리라고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그 가없는 영혼들을 위해 기구할 것이다.

박해시대의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신심의 깊이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심어준다면, 한국전쟁의 순교자들은 전쟁의 비극과 인간성의 회복을 통한 민족의 통일을 우리에게 말할 것이다. 즉 분단과 갈등을 뛰어넘어 그 해결을 위해 헌신할 것을 바랄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신앙인의 참다운 행동이며, 전쟁으로 희생당한 분들을 위한 참다운 행동이 아닐까 한다.

### 코아 삼익피아노

- 현금가 6개월 무이자 할부판매
  - 각종 신용카드 현금가 할부판매
  - 일반약기 전품목 할부판매 및 도소매
  - 철저한 책임관리 및 사후 서비스
- ☎ 86-1181.80-1111(교)  
호출기 015-670-1651

### (사슴)녹용, 녹혈 판매

- 때 : 6월초부터
  - 문의 : ☎ (0673)42-0052
- 최 봉 규(미카엘)  
최동물병원

### 이전개업 토성한의원

공 만 택(사 무 엘)  
박 순 실(라파엘라)  
중화산동 사거리  
비사벌아파트 상가 2층

### 효자한의의원

한방각과, 비만, 알러지성 체질,  
요실금 치료  
박 우 순(유스티노)  
유 혜 경(루 시 아)  
효자성당←→목화APT 사거리  
☎ (0652)222-3129, 226-1075

잡간

주여, 성역을 짓밟은 몽매한 집권자를 어찌하오리까!

6월13일 화요일 저녁 7시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현 정권에 의해 유린당하고 더럽혀진 명동 성당에서 성지회복을 위한 시국미사와 촛불행렬로 이어지는 침묵시위가 있었다.

오후 5시30분 경부터 갑자기 내린 세찬 소나기조차도 우리 나라 천주교의·상징이자 30여 년 동안 이 땅의 양심을 지켜온 민주화의 '성역', 명동 성당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의 발길을 막지는 못했다. 전국 각 교구에서 모여 온 사제들은 600여명을 웃돌았다. 어떤 교구의 사제들은 단식농성을 하던중에 올라왔다고 하고, 또 어떤 교구의 사제들은 피정중에 올라왔다고 했다. 성당의 안과 밖, 마당의 앞과 뒤를 가득히 매운 수도자, 평신도의 수는 3만을 헤아리기에 충분했다. 명동 성당이 생긴 이래 처음있는 일이라고 했다.

사상 유례없는 경찰의 명동 성당 난입과 그로 인해 짓밟힌 하나님의 성역에서 우리 모두는 정말 애절하고 침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교회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그들을 향해 활짝 열린 교회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시라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부도덕한 권력에 대해 행동으로 꾸짖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노라고. 그리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성역'을 다시 세우고 이 시대의 양심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노라고.

미사가 끝나고 침묵시위가 이어졌다. 촛불을 밝혀 든 600여명의 사제들이 앞장을 서고 수도자, 평신도들이 그 뒤를 이었다. 어둠을 밝히는 촛불을 들고 침묵중에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은 우리 스스로도 감당해 낼 수 없는 엄청난 힘의 무게를 느끼게 했다. 그것은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역을 회복하고, 침해당한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거역할 수 없는 우리 양심의 힘이였다.

침묵시위에 들어간 지 10여분 후, 다시 세찬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치켜올린 손을 내리려하지 않았다. 빗방울에 촛불이 꺼지고 머리카락을 타고 빗물이 흘러내려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의 가슴기슴엔 더 큰 불길이 타고르고 있었다. 침해당한 하나님의 권위,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역! 그 자리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이다.(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구 소식

명동 성당 성역회복을 위한 시국기도회

- 주례 및 강론 : 이병호 주교
  - 일시 : 6월19일(월) 오후7시30분 ■ 장소 : 중앙 성당
  - 주최 :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모두 모여 함께 기도합시다"

1. 축! 견진 : 6월23일(금) 오전10시30분 성심여중·고등학교  
6월24일(토) 오후4시 신동 성당, 6월25일(일) 오전10시30분 조촌동 성당
  2. 천호 피정 안내 : 6월24일~25일 주제-현대 가정의 위기와 구원(성가정),  
강사-유영봉 신부, 문의 73-6600
  3. 나운동 성당 봉헌식 : 6월25일(일) 오후2시 주례-이병호 주교
  4. 사무장(원) 연수회 : 6월20일~22일 천호 피정의 집
  5. 전주 하나회 월례미사 : 6월25일(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6. 교도사목후원회 월례미사 : 6월19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7. 전주 ME 소식지 「샘물」 발행 : 본당 대표를 통해 ME 가족에게 배포
- ※ 축! 영명 : 21일(성 알로이시오) 이태주 신부님  
24일(성 요한세자) 김봉희, 왕수해, 한기호, 김요안, 양석현, 정성만 신부님

요심이 (1137) 김병오



치질전문치료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75-0550

**쌍방울 효자 전문점**  
이오환(요한)  
양진희(아나다시아)  
효자 테니스 앞  
☎ 222-1723

**가르멜 남자 수도회 성소자 피정**  
· 때 : 7월29일~31일  
· 장소 : 인천 가르멜 남자 수도회  
· 대상 : 교교계학생, 대학생, 일반  
· 문의 : (032)542-2625  
성소담당 신부

**LG(금성)에어콘 총판**  
· 에어컨,항온습습기,공기정화기  
· 온풍기,대형냉장고,중앙집중식냉·난방  
원종삼(발라바)·원승연(도밍고)  
삼화공조 ☎(0652)251-0190~2  
휴대폰 011-653-2346

최첨단 부엌가구  
**ENEX 전북종합전시장**  
박영근(공사가)  
장정신(첼마)  
전주시 덕진구청 앞  
☎ 75-0523~4  
FAX (0652)75-0524

(주) 한국삼베전복총판  
최고급 전복수육/Q마크획득원단제품  
삼베양말/무좀예방,땀흡수타월,무취  
이경근(안토니오) 임경란(수신나)  
전주 서부우회도로 천화장사 옆  
☎(0652)212-6639,7046  
호출기 012-682-6631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 모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 이  
상의 미혼여성  
· 일시 : 6월25일(일) 오후 2시  
· 장소 : 삼광전본원 (0527)52-4241  
· 준비물 : 신구약 성서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 제 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 ◎ 축! 첫영성체: 29명 축하합니다.
- 1. 예비자 면담: 23, 24일 후 3시, 후 8시  
예비자 집중교리: 26일, 28~30일, 후 3시, 후 8시  
\* 세례식-7월2일 전 9시
- 2. 사목회 임시총회: 27일 전 10시(사목회 고문, 감사, 각 분과부  
장, 차장, 제단체장님들께서는 필히 참석바랍니다)
- 3. 사무장(원) 연수회: 20~22일, 천호 피정의 집
- 4. 중·고 교사 여름연수: 24~26일, 나바위
- 5. 비품마련 특별현금 신입액: 소개-187만원  
누계-33,036,400원  
봉헌액: 이태영-50만원, 이승은, 김진분, 조유순, 이정진, 박춘  
근-각 10만원, 성령기도회, 정선례, 김용석-각 5만원, 최경례  
-2만원, 김진환-1백만원, 대건회-30만원, 박봉덕-3만원,  
소개-250만원, 누계-28,963,376원 \* 아직까지 신입하지 않  
으신 분은 사무실에 신입바랍니다.
- 6. 모임: ①대건회(18일 장엄미사 후)  
②여성연합회(21일 어머니미사 후)  
③꾸리아(25일 천사의 모후-장엄미사 후)  
자비의 모후-후 2시
- 7. 17일부터 25일까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기도가 있음.
- 8. 금주 청소: 중노 27, 남노 1반. 차주 청소: 남노 2,3반  
□ 지난주 봉헌금: 1,006,590원 □ 교무금: 946,0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평

- 1. 축! 첫영성체: 오늘 공식미사중(11명)
- 2. 레지오 단원 교육: 20일(화) 오전 10~12시  
진단원 참석바랍니다.
- 3. 가정 방문: 21일(수)-오후 2시 진북 1반  
22일(목)-오전 10시 진북 2반  
오후 2시 진북 3,4반
- 4. 사무원 연수: 20~22일 천호 피정의 집
- 5. 유아 세례: 24일 오후 7시
- 6. 빈첸시오회: 24일 오전 10시
- 7. 전입을 환영합니다: 김옥련 콜롬바(다가4반),  
김동안 비리버(완산반)
- 성당 청소: 6월24일(토) 천주의 성모Pr. 사랑하옵 어머니Pr.  
금주 전례: 해설-유두석, 독서-황길평 부부,  
봉헌-첫영성체 어린이  
차주 전례: 해설-형임순, 독서-유달수 부부  
봉헌-송중일 가족
- 주일헌금: 632,500원 □ 교무금: 1,445,500원

**\* 상관** 사 제 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실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연중 11주일)
- ◎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 1. 모임: ①성가대, 세영세자 모임-공식미사 후  
②성모회, 자모회-다움유일  
③꾸리실료 올트레아-29일(목) 저녁 8시
- 2. 지속적인 성체조배: 22일(목) 저녁미사 후~
- 3. 감사: 안 아나다시아-50만원, 익병-35만원, 황대호-20만  
원, 강정순, 김관식-각 10만원, 안 아가다-3만원, 입아니콘다  
-2만원
- 4. 사무장 연수: 20일~22일, 천호 피정의 집
- 5. 중·고 교사 연수회: 24일~26일, 나바위 성당
- 6.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기도: 17일~25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일): 25일(일)
- 7. 성당 청소: 금주-모든 성인의 모후Pr.  
차주-성실하신 동정녀Pr.
- 8. 금주 전례: 해설-이경숙, 독서①최경림 ②이순자  
봉헌-이옥동 가정
- 9. 차주 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이옥동 ②송정자  
봉헌-최원규 가정
- 지난주 봉헌금: 465,400원 □ 교무금: 589,000원

**\* 서학동** 사 제 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범부

- 1. 모임 안내: 성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장소-강당
- 2. 레지오 교육: 6월21일(수요일) 저녁 8시, 장소-성당  
(정단원 및 협조단원은 꼭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예비자 교리 안내: 매주 일요일 오후 5시30분, 장소-1회합실
- 4.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6월17일~25일(9일기도)
- 5.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교사연수: 6월28일(수) 13:00~30일  
(금) 장소-나바위 피정의 집
- 6. 전례 안내: 금주 전례-이동재(베네딕도)  
독서①신오철(요한) ②김남순(안나)  
차주 전례: 전병구(비오)  
독서①하성만(시몬) ②최혜입(사라)
- 7. 청소 안내: 금주-사랑의 샘  
차주-상아탑
- 8. 성전의자 현금 내신 분: 익명 150,000원  
□ 지난주 봉헌금: 943,150원 □ 교무금: 1,115,0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동진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 ◎ 축! 주임 신부님 영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6월24일)
- 1. 금주: ①바리의 성모Cu.(후 2시)  
②청년회(후 8시)
- 2. 성화회: 19일(후 7시)
- 3. 성모회: 20일(전 11시)
- 4. 빼앗따회: 21일(전 10시)
- 5. 성지회: 23일(후 8시)
- 6. 첫영성체 교리 시작: 20일(후 3시)-강당
- 7. 중·고 여름 연수: 24일~26일(나바위 피정의 집)
- 8. 사무장, 사무원 교구 연수: 20일~22일(천호 피정의 집)
- 9. 차주: ①성바리야 꼬미시움(후 2시)  
②혼인강좌(전 9시30분)-가톨릭센터  
③교무금 납부주일
- 10. 고경 전례 안내: ①고백성사-평일미사 후 ②혼인면담-매주  
토요일 오후 4시 ③성체강복 및 조배-매주 첫 목요일 오전 10시  
④평자봉성체-매주 첫 금요일 오후 2시 ⑤유아 세례-홀수달  
 둘째 토요일 오후 3시 ⑥차량 축복식-홀수달 마지막 주일 공식  
미사 후
- 주일헌금: 2,180,300원

**\* 평화동** 사 제 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강삼근

- ◎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요한 6,51)
- ◎ 첫영성체 어린이와 세례자 모든 이에게 축하드립니다.
-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17일~25일, 모든 미사중
- 2. 예수 성심의 밤: 23일 저녁미사중(19:30) 전신자 참여
- 3. 중·고 교리교사 여름연수: 24일~25일 나바위
- 4.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수요일 전 11시-권 실비아 수녀님  
목요일 저녁 8시-주임 신부님, 토요일(학생) 후 5시-권 실비아  
수녀님, 일요일(의부) 전 11:30-원장 수녀님
- 5. 가정 방문: 오전 9시, 22일 8-7,8, 23일 8-9,10
- 6. 반미사: 20일 저녁 8시 8,4, 21일 저녁 8시-8-5  
22일 후 3시-8-1, 23일 후 3시 8-11
- 7. 성소 후원의 날: 오늘 공식미사 후, 미사 전후 회비 납부
- 8. 회의: 임무누음, 한빛회-오늘 공식미사 후  
성모회-21일 어머니미사 후  
올트레아, 풍송회-25일 공식미사 후
- 9. 교도사목 후원 월례미사: 19일 전 10:30 섀타 3층 회의실
- 10. 축하합니다: 정의의 거울Pr. 100차 기념, 25일 성지순례
- 11. 썩개떡 총 판매 수입금: 6,455,600원,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12. 사무장, 사무원 연수: 20일~22일 천호
- 13. 박준성(야고보) 가정 연미사: 24일 후 5:30 에그린A 나/109
- 지난주 봉헌금: 1,640,200원 □ 교무금: 1,499,000원